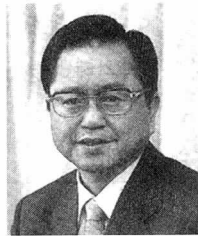


최재욱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환경정책이야말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인터넷을 통한 토론평당을 개설 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과의 토론평당」은 개설 이래 지금까지 수백건의 「국민의 의견」이 들어 왔으며 최 장관은 이들 의견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 토론평당의 국립공원관련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포커스

최 재 욱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방식의 전환

('98 금수강산 국립공원 사진대전 축사. '98. 4. 20)

그간 국립공원의 관리실태는 이용객 위주로 관리해 온 결과, 자연이 훼손되어 생태계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공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진정한 의미를 살려 앞으로는 훼손된 지역의 복원과 휴식년제의 확대 등을 통해, 국립공원이 진정한 〈자연학습의 장〉과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금수강산의 상징〉이 되도록 자연보전 중심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은?

국민의 의견

의견제출인 : 이 수 한

제출일자 : 1998/06/30

국립공원업무가 환경부소관으로 된 것에 환경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국립공원주변지역이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의 회신

-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립공원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것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자연환경의 관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하여 국립공원관리를 종전의 개발·이용위주에서 자연환경보전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공원 관리기반을 재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맡게 된 첫 환경부장관으로서 저는 이관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장관 취임식 이튿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초도순시하고 그동안 주말 등을 이용해 가야산·설악산·소백산·치악산 국립공원을 순시한 것은 그런 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도 내장산국립공원과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순시할 예정입니다. 길떠나기전에 이 답변서를 쓰고 있습니다.

- 1967년 국립공원제 도입이후 지난 30년간의 국립공원관리를 되돌아 보면 국립공원의 기본적 틀과 관리체제는 갖추었으나 숙박·위락시설이 난립하고 행락객이 급증하는 등 관광 위락지화한 경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립공원의 자연환경보전과 질 높은 공원탐방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부에서는 앞으로 국립공원을 공원자원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진정한 자연학습장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탐방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숙박,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확대개발은 억제하되 안전이용시설등은 필요한 수준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행락인과의 사전 예고제와 공원시설이용의 사전예약제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시행중인 자연휴식년제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립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중심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구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공원내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조사·연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있다

국민의 의견

의견제출인 : 김 진 희

제출일자 : 1998/06/15

얼마전 가족과 같이 무주에 여행을 갔습니다. 기분 좋게 떠났지만 여행중에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이유는 국립공원 입장료 때문이었습니다. 구경 또는 산행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했다면 입장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다소 비싼감은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통과하는 목적으로 그것도 도보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로를 단순히 지나가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더우기 차량에 탑승한 인원의 수를 세어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국립공원내에 도로는 왜 만들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단순히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받기 위해 만들었는지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계속하여 입장료(통행료)를 징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통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입장료 명목의 통행료 징수는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의 회신

- 현재 국립공원내의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단순 통과차량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도 거창군과 무주군을 연결하는 37호선 국도 및 727호선 지방도를 이용하여 공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이러한 착오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무척 상하셨다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담당부서(자연공원과 전화 : 02-504-9286)로 알려 주시면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국민의 의견

의견제출인 : 이 민 성

제출일자 : 1998/06/15

국립공원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지만 너무 비싼것 같다. 입장료로 도대체 뭘하는지도 궁금하다 산에 가보면 편의시설이 특별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점상들이 판을 친다. 깨끗한 산을 가꾸기 위해 입장료를 받는 것일진데 입장료로 뭘 하는지 왜 그렇게 비싼지 궁금하다.

환경부장관의 회신

- 선생님께서 비싸다고 하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1인당 1,000원입니다. 그러나 공원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사찰 측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가 1,100~1,500원씩 가산되고 있어 공원입장료는 더욱 비싼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 공원입장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 수입은 쓰레기 수거처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탐방로 설치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97년의 경우 입장료수입(210억원)은 공원관리에 소요된 총비용(381억원)의 55%밖에 되지 않아 정부보조금과 시설사용료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원에 연간 400억원 이상의 국고를 투자하여 집단 시설지구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우리나라의 공원시설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을 개선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